

“위대한 시민의 승리...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해야”

광주·전남 각계각층 반응

오월단체 “진정한 민주주의 염원”
광주시의회 “내란수괴 체포·처벌”
지역민들, 경제안정 등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 지역 각계각층 등 지역민들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반겼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과다.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내란수괴 윤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잔당들의 법적 단죄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행위에 동조했던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해 후세 만대에 교훈이 되는 처벌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18 단체는 윤 대통령 정권 종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 비상행동도 같은날 긴급 성명을 내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동조해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압박해 기어이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압도적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란 사태의 연장을 기도했다. 다시는 불법적 내란 행위가 반복될 수 없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진 지난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6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서 시민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우리의 승리는 아직 미완이다”며 “완전한 승리를 위해 뜨거운 공론장을 만들고, 정치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우리의 요구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도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야 국회가 탄핵했다. 매서운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헌정 질

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처벌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겁박하였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 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

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다.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도왔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초유의 계엄 사태로 나라으로 치탄

던 대한민국을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되돌렸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 심리를 개시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탄핵심판 등 남은 절차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불법 계엄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비상계엄 사태부터 현재 탄핵 정국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혼돈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불안정한 현 시국이 오래갈수록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내년도 사업의 집행 시기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가장 우선이며 탄핵 후 빠른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조성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시민 박상수씨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어른으로써 추위 속에서도 금남로에 집결한 많은 젊은이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다”며 “12·3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을 통해 올바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정원우씨는 “광주 금남로를 포함해 전국의 거리에 모인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계 대표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된다면 이후 정권을 잡을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올바른 사회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박소영·윤준명 기자**

“내가 만든 대통령 내손으로 끌어내려”

‘탄핵 찬성’ 김상욱, 끝내 오열

김상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끌어내려야 하니 착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S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보수의 가치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보수의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여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당이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유가 어찌 됐든 오늘의 탄핵 가결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자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한다”며 눈물을 삼켰다.

국민의힘 탄핵안 찬성표가 12표가 나온 것에 대해선 “많이 나왔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대통령 탄핵이 먼저이니 그런 부분들은 좀 뒤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탄핵안에서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탄핵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과 보수주의의 확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찬성표를 던진 국민 의원들에 대해 “정말 어려운 용기를 낸 것”이라며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심지어 정말 발 불일 곳 없을 정도의 비난을 감수하고 다 내려놓고 찬성표를 던졌다”며 용기와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같이 있어야 한다. 상생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를 되보시킨다.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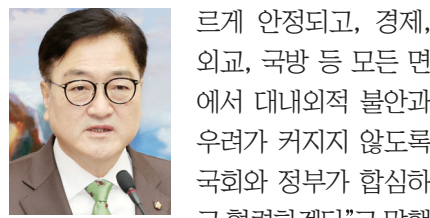
“이제 퇴근...국민이 함께 해줘 든든했다”

우 의장, 내란사태 이후 국회 지켜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한 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



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흘 만에 퇴근했다.

우 의장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안정된 진행으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우 의장이 국회 담을 넘는 한 장의 사진은 계엄 선포가 위한·위법했다는 사실

광주시, 민생경제 안정 대책 신속 추진

시·공공기관 소비촉진 캠페인 연말 축제·행사 등 정상 진행도

광주시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강기정 시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탄핵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까지의

깊은 혼란할 수도 있다”며 “혼란한 시기일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민생이다. 집회 과정에서 고생한 시민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수출 부진·환율 급등으로 고달픈 기업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2월 송년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상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비진작 이벤트,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신속히 추

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우 의장은 12·3내란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지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페이스북에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들리는 응원봉 불빛을 봤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서 든든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 및 내년도 정부 추경에 미리 대비해 연내 중앙부처와 협의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안전점검 대책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재난안전 등 민생안정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지역체감 경기 회복, 지역물가 관리 철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시행, 연말연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기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노병하 기자**